

1순위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홍보 - 환경용어사전

2순위 백과사전

3순위 책, 영상

㉟

기후 氣候

지표면의 특정장소에서 매년 비슷한 시기에 출현하는 평균적이며 종합적인 대기상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날씨 日氣

비, 구름, 바람, 온도들로 살펴보는 한 날의 상태.

선생님, 기후위기가 뭐예요?. 최원형. 철수와 영희. 2020

기후변화 Climate Change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기후의 평균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변화 등 지구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조성의 변화나 지구 표면 상태의 변화 등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최근에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인위적 요인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가리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환경부

(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정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대기 중의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협약이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되었고, 1994년 3월에 발효(197개 국가 및 기관 서명)되었다. 협약 자체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시행령에 해당하는 교토 의정서를 통해 의무적인 배출량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각국의 능력에 입각한 의무 부담',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여건의 배려' 등의 기본 원칙하에 당사국을 부속서 I, 부속서 II 및 비부속서 국가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토록 하였다. 협약 발효 이후 1995년부터 매해 협약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 총회(COP)가 개최되어오고 있다. 최근 COP21(2015년)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신기후체제에 참여토록 하는 파리 협정이 채택되었다.

환경부

기후위기

최근에는 기후변화라는 말 대신 기후위기라는 말을 씁니다. 기후는 우리 삶에, 특히 먹을거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데 그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예요.

선생님, 기후위기가 뭐예요?. 최원형. 철수와 영희. 2020

공장식축산 factory farming

공장식 축산이란 공장에서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듯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

계 축산업에서 공장식 축산이 지배적이다. 동물권 무시, 집단적 질병 발생의 위험성, 환경오염 문제, 대규모 농장에 자본이 집중됨으로써 영세한 농가의 경쟁력 약화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공장식 축산은 오랜 시간 동물들의 생명 윤리 논란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인수공통감염병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열악한 축사에서 밀집된 채 사육당하면서 항생제로 연명하는 축산동물은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약하다. 또한 벌목과 간척 등의 개발로 야생동물과 인간의 거리가 강제로 가까워진 가운데, 공장식 축산은 야생동물 사이의 감염병이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진화하여 인간에게 달는 과정의 촉매 역할을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장식 축산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에듀윌 시사상식 2020년 12월호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무들을 명기한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의정서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되었고 2005년 발효되었다. 특별히 산업화된 국가들의 의무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행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기반의 배출권거래,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등 유연성체제를 허용하고 있다. 감축 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의 여섯 가지이다. 파리협정이 출범하는 2020년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환경부

그린뉴딜 green new deal

그린뉴딜은 녹색산업을 뜻하는 '그린'과 1930년대 미국의 국가 주도 경기부양책 '뉴딜'을 합쳐진 말로, 기후변화와 경제 문제를 동시에 풀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같은 친환경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말한다. 그린뉴딜은 미국 토머스 프리드먼의 『코드 그린: 뜨겁고 평평하고 봄비는 세계』란 책에서 처음 언급된 용어다. 그린뉴딜의 목표는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 등의 단순 구호가 아닌 경제 · 산업 시스템의 변화를 피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푸는 동시에 사회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다.

그린뉴딜 운동은 단시간 내에 많은 추종자를 만들어냈으며 미디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 1월 정부가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등의 사업이었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과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등은 그린뉴딜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들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정책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방안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에듀윌 시사상식 2020년 5월호

그린워싱(친환경위장제품) Green Washing

green(녹색)과 white washing(세탁)의 합성어로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

사파리월드 이름바꿔 그린워싱?... "꽃자왈 파괴 여전" 제주투데이 2021.02.25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674>

스타벅스 행보, 친환경인가 그린워싱인가 그린포스트코리아 2021.04.16.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097>

기후난민(쿠르디. 환경난민)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간한 기후 위기 보고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부족으로 먹을 걸 찾아 이동하는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렇게 발생하는 기후 난민은 큰 사회 문제가 되겠지요.

선생님, 기후위기가 뭐예요?. 최원형. 철수와 영희. 2020

인류 위협하는 '기후변화' 대응 늦추면 경제도 타격 2021.01.17 |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83037>

기후난민 2500만 명 육박...난민 보호 확대해야 2020-06-09 가톨릭평화신문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80992&path=202006

생태학적 난민(영어: Environmental migrants) 또는 환경 난민

기후 변화 등 환경 파괴의 원인으로 생존을 위협받아 본래있던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러한 원하지 않는 변화는 난민의 안전한 생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가뭄, 사막화, 해수면 상승 및 계절별 날씨 패턴의 붕괴가 포함된다. 환경 난민은 자국의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

온실가스로 인해 해수면이 1미터 상승할 경우 인구가 밀집된 저지대국가, 연안지역, 방글라데시, 중국, 몰디브 등에서 수백만 헥타아르의 토지가 상실되고 수 많은 환경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위키백과

기후위기 비상행동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로 다가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청소년, 환경, 인권, 노동, 종교 등 각계각층의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기후운동 기구입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광범위하고 시급한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비폭력 행동주의(activism)를 추구하면서 정부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1. 기후위기 진실의 인정과 비상상황 선포
2.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의 수립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행동
3.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의 설치

기후위기비상행동 공식 홈페이지

<http://climate-strike.kr>

기후정의 Climate Justice

기후변화 현상은 지역과 계층에 따라 미치는 영향과 대처 역량이 다르므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포스트 교토체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기후정의'이다.

"기후변화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

2019-10-29 가톨릭평화신문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65500&path=201910

공동체 파괴 송전선로...한전·정부 외면 일관

2021년 04월 15일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8662>

㉞

내연기관

내연 기관(內燃機關, 영어: internal combustion engine)은 연료와 공기 따위의 산화제를 연소실에서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는 기관이다. 연소실에서 연소되는 연료와 산화제의 발열반응으로 인해 높은 온도와 압력의 기체가 생성되어 엔진의 피스톤 및 축차가 움직이게 하여 엔진을 가동시킨다

위키백과

유럽 주민 63%,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찬성

2021.04.14. 동포투데이

<http://www.dspdaily.com/news/view.php?no=16482>

[제로노믹스, 탄소 없는 기업만 생존] "내연기관차 단종하시죠"...누군가는 말해야 한다

2021-04-23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422160916289>

녹색금융 Green Finance

녹색산업과 녹색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친환경금융을 말한다.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 생산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심사 및 감시 기제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文대통령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녹색금융' 확대 추진"

2021.04.23. 더팩트

<http://news.tf.co.kr/read/ptoday/1856367.htm>

㉟

대체에너지

Alternative Energy

일반적으로 기존의 화석 연료가 아닌, 환경에 적은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를 말한다. 천연자원을 소모하거나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얻어지는 에너지이다. 그러므로 대체 에너지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와는 구별된다. 현재 선진각국에서 활발히 기술개발이 진행되어 실용화 단계에 접어든 대체 에너지로는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가 주종을 이루며, 바이오매스, 지열, 파력, 해양온도차 등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

데이터센터 data center

서버 컴퓨터와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건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서버 호텔(server hotel)이라고도 부른다. 데이터 센터는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 쇼핑, 게임, 교육 등 방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웹 사이트에 표시하기 위해 수천, 수만 대의 서버 컴퓨터가 필요하게 되자, 이 서버 컴퓨터를 한 장소에 모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게 되었다.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많은 열을 발산하므로 냉각이 중요한데, 냉각 비용이 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페이스북은 데이터 센터의 냉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스웨덴의 북극권에 데이터 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위키백과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려면 메일함을 비우자!

2021.04.19 소비라이프

<http://www.sobilif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89>

㊦

런던스모그 London Type Smog

공장·발전소, 가정용 난방에 사용되는 석탄·중유의 연소로 생기는 매연에 짙은 안개가 결합하여 발생하는 스모그로 1952년 런던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전형적인 예다. 세계 각 도시의 공통된 스모그의 전형으로 주요 오염물질은 황산화물과 일산화탄소이다.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며, 호흡기를 심하게 자극하여 폐질환을 일으킨다. 1952년 12월 발생한 런던스모그로 인해 폐질환에 걸렸던 시민 4,00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1962년 340명이 사망하였다.

환경부

로컬푸드 Local Food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로, 흔히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칭한다. 로컬 푸드 운동은 환경 보호와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 구조 창출,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성을 형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 등에 기여하는 사회적 움직임이다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 찾기...성남지속협, 우수 요리 발표

2021/04/20 분당신문

http://www.bundangnews.co.kr/sub_read.html?uid=32570

성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성남농협의 재미있는 실험...로컬푸드 활용한 의미있는 요리만들기

2021/04/09 분당신문

http://www.bundangnews.co.kr/sub_read.html?uid=32441

㊦

메탄 Methane

교토의정서에 지정된 6대 온실가스의 하나로 이산화탄소 대비 23배의 온실효과를 낸다. 유기물이 부패·발효할 때 생기므로 늪지대의 바닥, 쓰레기 매립지, 화석연료의 불완전연소 등을 통해 발생된다. 천연가스의 주성분으로 연료로 많이 이용된다.

환경부

지구를 위해 자가격리 중인 메탄가스 이야기

2021-04-26 울산저널

<http://www.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592233918547>

기후변화 영향 이산화탄소 28배 메탄 농도, 작년 온실가스 감축에도 급증

2021.04.19. 에너지경제신문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419010003779>

멸종위기 야생생물(국내)

Endangered Species(National)

멸종위기에 처했거나(I급),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II급) 야생생물로,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생물을 말한다. 지정된 동식물은 불법포획, 채취, 유통 및 보관 등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3년 주기로 '전국 분포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2017년 기준 총 267종의 야생생물이 지정되어 있다.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CBD-CHIM Korea)'를 통해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흰목물떼새 등지 2곳' 발견

2021.05.03. 중앙뉴스

<http://www.ej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513>

"꼭 알아야 할 멸종위기 야생생물 확인하세요"

2020. 11. 30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2911081069804&outlink=1&ref=%3A%2F%2F>

멸종저항운동

멸종저항은 국제 기후 대책을 요구하는 환경단체로 2018년 영국에서 시작됐다. 기후 위기로부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멸종을 막기 위해 저항한다. 이들은 정부에게 기후위기를 선언할 것, 생태 다양성의 손실을 막기 위해 202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넷제로(Net Zero) 상태에 도달할 것, 기후와 생태 정의에 기반한 시민 의회를 창설할 것을 요구한다.

에듀윌 시사상식 2020년 11월호

[한것의올림] 석탄 깔린 아이 마네킹... 질식할 지구의 미래

2021-04-23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23510994?OutUrl=daum>

미세먼지(PM-10/PM-2.5)

Particulate Matter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 입자들로, 굵기에 따라 PM10(직경 10 μ m 이하, 1 μ m=백만분의 1미터), PM2.5(직경 2.5 μ m 이하) 등으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산업시설,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주발생원으로 중금속,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호흡기를 통해 폐에 흡착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해 뇌질환, 심장질환을 일으킨다.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최근 가장 심각한 환경현안으로, 정부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경유차조기폐차, 미세먼지예경보제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흡입성먼지로,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 μ m 이하인 먼지)와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 μ m 이하인 먼지)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1호)

환경부

기후비상시대, 응답하라 정치!

2021.04.16. 서대문사람들신문사

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news&DA=PGD&cluster=y&q=%EB%AF%B8%EC%84%B8%EB%A8%BC%EC%A7%80+%EA%B8%B0%ED%9B%84%EC%9C%84%EA%B8%B0&p=5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

1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너무 작아 하수처리시설에 걸러지지 않고 바다와 강으로 그대로 유입된다. 치약, 연마제, 각질제거 세정제 등에 들어있는 1차미세플라스틱이 있고, 물 속에 버려진 플라스틱이 시간이 지나면서 작게 분해된 2차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물질로 만들어지는데 이들 물질은 환경과 주위의 바닷물 중에 존재하는 합성 유기화합물을 표면에 흡착해 운반함으로써 독성을 가중시킨다. 수중에 배출된 미세플라스틱은 수생태계를 교란할 뿐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해 수생생물의 몸에 축적되어 인간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어 그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

[1일IT템] 1950년대의 물고기 내장속 미세플라스틱은 합성섬유였다

2021. 05. 03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5030017227044>

담배꽂초가 해양미세플라스틱 주범이라고...

2021-04-15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748230&code=61121111&cp=du>

㊦

바이오에너지 Bio-energy

농림 부산물, 산업체 부산물,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 가능한 에너지를 말한다. 2012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의 약 15%를 차지한다. 바이오매스는 계속 자라거나 생성될 수 있으므로 바이오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이자 지구온난화 절감을 위한 탄소중립에너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환경부

분리배출 표시제도

Separate Waste Disposal Labelling System

폐기물에 재활용 여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이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환경부

안동,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일반주택 확대'... 오는 4월부터

2021.03.26 안동뉴스

<http://www.adns.kr/news/articleView.html?idxno=12531>

블루카본blue carbon

세계의 해안가의 해양 생태계, 대부분 맹그로브 숲, 염생습지, 해초류 그리고 해조류에 의해 흡수되는 탄소를 뜻한다.

역사적으로 해양 및 육상 삼림 생태계는 주요한 천연 탄소 배출구였다. 연안 생태계의 역할에 관한 새로운 연구는 고효율 탄소 배출구로서의 잠재력을 강조했으며 블루카본이라는 용어에 대해 과학적 인정을 받았다. 블루카본은 숲과 같은 전통적인 육상 생태계가 아닌 해안 해양 생태계를 통해 고정되는 탄소를 나타낸다. 바다의 식생 서식지는 해저의 0.5 % 미만을 차지하지만 해양 퇴적물에 있는 모든 탄소 저장량의 50% 이상, 잠재적으로 최대 70%를 차지한다. 맹그로브, 염생습지 및 해초는 대부분의 해양 식생 서식지를 구성하지만 이는 육지 식물 바이오매스의 0.05%에 불과하다. 작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매년 비슷한 양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으며 매우 효율적인 온실가스 흡수원이다. 이들은 이산화 탄소를 기저 퇴적물, 지하 및 지하 바이오매스, 죽은 바이오매스 등을 통해 탄소를 대기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다.
위키백과

[탄소제로]"승용차 20만 대분 탄소 흡수"…떠오르는 '블루카본'

2021-04-26 MBN뉴스

<https://www.mbn.co.kr/news/economy/4487990>

[특별기획]태안 염생식물·해안사구 복원지는 블루카본 '보고'

2021.04.25.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10423000141>

⊗

사막화 Desertification

가뭄, 건조화 등 자연적 요인과 관개, 산림벌채, 환경오염 등 인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토지가 사막환경화 되는 현상을 말한다. 사막화가 시작되면 숲이 사라져서 지표 반사율이 증가하고, 냉각화되어 강우량이 감소하여 더욱 빠른 속도로 사막화가 진행된다.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600만ha의 면적이 사막화되고 있다. 유엔의 정의에 의하면 사막화란 '토지의 잠재된 생물 생산력이 저하되거나 파괴돼 그 결과 사막으로 변해 가는 현상'을 말한다.

환경부

제주 바다 사막화 실태조사 벌인다

2021-04-19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757738&code=611211111&cp=du>

생물다양성 Biological Diversity

생물학적인 다양성'의 약자로서 생태계 다양성, 종다양성, 유전자다양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생태계다양성은 사막, 산림 지대, 습지대, 산, 호수, 강 및 농경지 등의 다양성을 말하고 한 생태계에 속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성을 의미한다. 종다양성은 식물, 동물 및 미생물의 다양한 생물종으로 이해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지역내 종의 다양성 정도와 분류학적 다양성을 지칭하는 의미를 가진다. 유전자다양성은 종 내의 유전자 변이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종 내의 여러 집단을 의미하거나 한 집단 내 개체들 사이의 유전적 변이를 의미한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할수록 생태계가 건강하고 그로 인해 우리 인류가 누리는 혜택(생태계서비스)도 늘어난다.

환경부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협약으로 1992년 6월 리우의 지구정상회담에서 158개국 대표의 서명으로 채택되었다. 생물 다양성의 보전,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

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생물 다양성협약의 이행과 후속의제들을 다루기 위해 1994년부터 2년마다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다.

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업체가 제품 생산 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은 물론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한 제도이다.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한다. EPR을 지원하는 제도로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도록 하는 '분리배출표시제도', 분리수거지침에 따른 '분리수거' 및 '빈용기보증금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다.

환경부

포장 클수록 잘 팔리는 장난감, 아이들 미래 값아먹는다

2021.04.28.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2520220002483?did=DA>

‘예쁜 쓰레기’ 화장품 용기… 64% 재활용 안 돼 포장재 바꿔야

2021-04-27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28018002&wlog_tag3=daum

생태계서비스 Ecosystem Services

인간이 자연의 다양한 생태계 기능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얻는 혜택을 말한다. 생태계서비스는 공급서비스(식량, 의약품 등), 지원서비스, 조절서비스(기후조절, 수분조절 등), 문화서비스(영적인 충족, 미적체험)의 4가지로 분류되며 여러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유엔이 주도한 새천년 생태계 평가는 생태계 시스템 작동에 생물다양성이 근원적 바탕이 되며 생물다양성이 훼손될 경우 생태계가 제공하는 혜택 역시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사실에 의거,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지구 생태계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환경부

생태발자국 Ecological Footprints

사람이 사는 동안 자연에 남긴 영향을 토지의 면적으로 환산한 수치이다. 인간이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 에너지, 시설 등의 생산,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개인 단위와 국가 단위, 지구 단위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생태발자국은 헥타아르(ha) 또는 지구의 갯수로 나타내는데, 수치가 클수록 지구에 해를 많이 끼친다는 의미이다.

환경부

스마트 그리드 Smart Grid

전기의 생산, 운반, 소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전기 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이다. 전력산업과 IT 그리고 통신기술을 결합하여 안정적이고 고효율의 지능화된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실시간 전력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게 전력 사용 시간과 양을 통제한다.

환경부

신재생에너지 New and Renewable Energy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말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나 핵분열을 이용한 에너지가 아닌 햇빛·바람·물 등 친환경, 비고갈성, 기술주도형 에너지를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신에너지 3분야(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에너지)와 재생에너지 9분야(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지열, 수열에너지)의 총 12개 분야가 지정되어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고유가 및 기후 변화협약에 대응할 핵심 대안이며, 97% 이상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게는 중요성이 더욱 크다.

환경부

쓰레기섬

각각 하와이 섬 북동쪽으로 1,600km떨어진 쓰레기섬과 일본과 하와이 섬 사이에 있는 태평양을 떠다니는 두 개의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일컫는다. 쓰레기 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그 크기가 웬만한 작은 규모의 섬들보다 크다고 한다.

이 쓰레기 더미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인공물 중 가장 큰 것들로, 대한민국의 약 16배 정도의 크기이고 무게는 8만t이라고 한다. 이처럼 쓰레기가 한곳으로 모여 섬에 가까운 모습이 된 것은 원형 순환 해류와 바람 때문인 것으로 보며, 1950년대부터 10년마다 10배씩 증가하여 오늘날 거대한 쓰레기 지대가 만들어졌다.

이 섬은 1997년, 미국의 해양 환경운동가인 찰스 무어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 때문에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특히 먹이로 잘못 알고 먹었다가 죽게 되는 사례도 있으며 주변 지역에서 잡힌 어류를 조사한 결과 35%의 물고기 뱃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음을 확인했다

◎

업사이클링 Upcycling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합성어로, 버려지는 폐기물을 가치 상향식 재활용을 통해 기존보다 더 좋은 품질, 더 높은 수준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방수천막으로 예쁜 가방을 만드는 식이다. 쓰레기를 원료 형태로 환원해 다시 활용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재활용보다 한 단계 진화한 개념이다.

환경부

에너지 노예

화석연료를 에너지 노예, 기계노예로 부르며 살다가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화석연료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화석연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은 물론 우리 삶 자체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낙타를 타야 한다고? 장성익. 풀빛. 2020

영구동토층 permafrost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토양 온도가 0°C(물의 어는점, 32°F) 이하로 유지된 토양을 일컫는다. 대부분의 영구동토는 북극이나 남극에 가까운 고위도 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나, 높은 고도에 형성되는 고산 영구동토층은 낮은 위도에도 존재할 수 있다. 빙결은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무공성 기반의 경우에는 빙결이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영구동토는 지구 상의 수분 중 0.022%를 차지하며, 북반구에 노출된 토양의 24%에 존재한다.

위키백과

온실가스(GHG)

Green House Gas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대기 중 가스형태의 물질로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복사에너지를 흡수해 지구온도를 높이는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교토의정서에서 규제대상으로 규정한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이지만, 이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가장 많아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온실가스는 원래 지구 온도 유지에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과다배출되면서 온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

이산화탄소(CO₂)

Carbon Dioxide

주요 온실가스로 1990년 부속서 I 국가(기후변화협약 상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1%를 차지했다. 교토의정서의 6가지 온실기체 중 하나이며 주로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므로 대기 중 농도가 인간활동에 의해 가장 크게 좌우된다. 지구온난화지수(GWP) 1로 다른 온실가스들의 온난화효과 비교 시 기준이 된다.

환경부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

제안된 지질 시대로, 홀로세(현세) 중에서 인류가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 시점부터를 별개의 세로 개념이다. 정확한 시점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대기의 변화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산업 혁명이 그 기준이다. 절대다수의 층서학자는 미래에 별개의 지질 시대로 볼 수 있을지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지질학회에 속한 다른 학자들은 언젠가 인류세가 독립된 지질 시대로 공인될 것으로 전망한다. 인류세의 개념은 노벨 화학상을 받은 대기화학자 파울 크뤼천이 대중화시켰다.

인류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핵실험이 실시된 1945년을 인류세의 시작점으로 본다.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들로는 방사능 물질,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 등을 꼽는다. 심지어는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기도 한다. 인류세 지지자인 얀 잘라시에비치는 “테크노스피어는 지질학적으로 어리지만 놀라운 속도로 진화해가고 있다. 이미 우리 행성에 깊은 자국을 남겼다.”고 말했다.

위키백과

인수공통감염병

사람과 척추동물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질병의 총칭. 인류가 가축 등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동물과 사람 사이에서 적응하거나 진화한 병원체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이다. 전체 감염병의 약 75% 이상이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탄저병, 페스트, 브루셀라증,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음백과

⊗

자원순환사회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reduce)하고,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사용(reuse) 또는 재생이용(recovery)하며,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친환경적으로 이용·관리하는 사회를 말한다. 기존 사회가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자원순환사회는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부

재사용 Reuse

사용후 제품이나 부품을 특별한 생산공정 없이 단순한 세척이나 수리를 통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한 공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사용한다는 점에서 재활용과 구분된다. 재활용(Recycling), 감량화(Reduction)와 함께 3R로 통한다.

환경부

재활용 Recycling

한 번 사용한 제품을 다시 자원으로 만들어,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이용하는 일이다. 폐기물을 일정한 공정을 거친 후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재생(Recovery)과정과 재사용(Reuse)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을 의무화시켜 분리수거를 권장하고 있다. 재활용은 쓰레기 처리량의 감소, 자원절약, 에너지 절약 및 생활환경의 오염방지에도 큰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재활용율은 2016년 기준 세계 2위다.

환경부

저탄소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제사회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환경적 측면에서 화석연료 사용억제, 대체 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이유와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위기감과 유가 급등 등에 따른 경제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용용어사전

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

주로 개발도상국 지역의 문화적·정치적·환경적 면들을 고려하여, 삶의 질 향상과 빈곤 퇴치 등을 위해 적용되는 기술로, 첨단기술과 하위기술의 중간 정도 기술이라 해서 중간기술이나, 대안기술 등으로도 불린다. 영국의 경제학자 슈마허는 저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중간기술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지에 존재하며, 일반적인 사용이 가능할 만큼 충분히 싸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기술과 현지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로 정의하였다.

환경부

정의로운 전환

유해하거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업과 공정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희생이나 지역사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훈련과 재정적 지원을 보장한다는 원칙,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일련의 정책 프로그램을 말한다.

정의로운 전환. 김현우. 나뭇복스. 2014

제로웨이스트

모든 제품, 포장 및 자재를 태우지 않고,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토지, 해양, 공기로 배출하지 않으며 책임 있는 생산, 소비, 재사용 및 회수를 통해 모든 자원을 보존하는 것.

어슬링 대나무칫솔 포장재까지 신경쓴 브랜드!

2021.05.15. 네이버블로그 CURIOUS_JDyeon

<https://blog.naver.com/wjsek dus/222351461085>

[제로웨이스트 도전기 ㉔] 물티슈 없애고 행주 빨아 쓰다

2021.05.16 | 그린포스트코리아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820>

제트기류Jet Stream

북위 30°~40°의 대류권계면 부근에서 거의 수평축을 따라 불고 있는 강한 바람대를 말한다. 평균풍속은 겨울철에는 시속 130km, 여름철에는 시속 65km이며 공기밀도의 차이가 가장 큰 겨울철에 풍속도 가장 강하다. 바람의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가며, 경로는 대체로 구불구불하다.

국내 이상기후 대응하려면? 북극부터 살펴봐야

2021.04.28 | 뉴스펭귄

<http://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05>

[KISTI과학향기]지구촌 곳곳 이상한파의 원인은 기후변화

2021.03.08 | 전자신문 |

<https://www.etnews.com/20210305000089>

지속가능경영

Sustainable Corporate Management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기업의 경영활동에 접목시키는 21세기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다. 환경경영에서 한 걸음 나아가 기업 자신의 지속가능성 뿐 아니라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세계 환경개발위원회(WCED, 1987년)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지속가능경영의 평가기준과 가이드라인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침인 ISO 26000,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기관인 GRI의 가이드라인, 다우존스지수의 평가기준인 DJSI 등을 들 수 있다.

[ESG 이슈페이퍼] ESG 열풍과 기업경영의 과제

2021-05-20 아주경제신문

<https://www.ajunews.com/view/20210520083301155>

P4G

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는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력사업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가속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한국, 베트남, 콜롬비아, 덴마크, 케냐 등 12개 대륙별 중견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식량 및 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5개 중점분야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P4G 서울정상회의' 문 연다...내일부터 '녹색미래주간'

2021.05.23.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5231458214351>

'탄소중립' 내 고장부터... 'P4G' 앞두고 지자체들 선언

2021-05-23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7556_34936.html

⊗

채식

육식을 하지 않고 곡류, 과일류, 채소류 등의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로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채식주의자라고 부른다. 현대 서양의 일반적인 채식주의자는 우유와 달걀을 먹지만, 엄격한 채식주의자 혹은 완전 채식주의자라 불리는 이들(vegan)은 육류는 물론이고 유제품 등 동물성식품을 전혀 먹지 않는다.

다음백과

경남교육청, '채식급식의 날' 이름 짓기 공모

2021.05.23 경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231015001&code=620116#csidxd244399bdd60deda43e5b5f79b021ea

채식 식당 찾아 삼만리... 일회용 포장재 피할 길 없어 'πππ' [S 스토리-환경 생각하는 삶...

‘제비족’ 체험기]

2021-05-23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521512141?OutUrl=daum>

축소주의자

축소주의는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환경에 해가 되는 일을 줄여 나가자는 운동이다. 자신을 가혹하게 옥죄지 않는 선에서 육식을 줄이고, 과도한 쓰레기 배출과 자원 소비를 줄인다.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한 명의 완전 채식주의자보다 열 명의 축소주의자가 동물복지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믿는다.

축소주의자가 되기로 했다. 이보람. 카멜복스. 2020년

㊦

코펜하겐 합의

Copenhagen Accord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의 합의사항이다. 참가국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C 이내로 묶기로 하고 2011년 말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전 세계적 온실가스 감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진국들은 2010년 1월 말까지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개도국들은 감축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환경부

[특별기획]기후변화 맞설 탄소중립시대 온다(6)P4G정상회의로 녹색회복 주도

2021. 05. 23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10521000037>

쿨루프

쿨루프는 거의 화이트루프와 관련이 있는 한편, 다양한 색상과 재료로도 나올 수 있으며 상업용이나 주거용 빌딩 모두에 가능하다. 오늘날 쿨루프 안료는 메탈 루핑재가 어두운 색상, 심지어 검정색에서도 에너지스타가 되도록 해준다. 태양반사 자동차나 쿨카는 어두운 자동차보다 더 많은 햇빛을 반사해서 차의 내부로 전달되는 열의 양을 줄여준다. 그래서 에어컨의 필요, 연료소비, 온실가스방출과 도시공기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위키백과

진주시, 단독주택 '쿨 루프' 지원사업 추진

2021.05.13 |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51314593492780>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쿨 루프' 등 다양한 사업

2020-10-24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4_0001209240&cID=10803&pID=14000

㉔

탄소(국경)세

기후 관련 기준을 맞추지 못한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선생님, 기후위기가 뭐예요? 최원평. 철수와 영희. 2020

‘탄소 국경세’ 뜻을 알고 계십니까?..이산화탄소에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

2021-05-10 데일리환경

<http://www.dailyt.co.kr/newsView/dlt202105100004>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s

개인 또는 단체가 직 ·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CO2)의 총량을 의미한다. 탄소발자국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온실가스 발생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표시한다.

환경부

[이슈] 코로나19 이후 탄소발자국 짙어진 이유

2021-04-05 환경미디어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1131786320>

탄소배출권Carbon Emission Rights

일정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메탄 등 6대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발급하며,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의 개념은 1997년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처음 등장했다. 탄소배출권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각국이 대부분의 배출권을 기업에 할당하기 때문에 거래는 대개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한국의 배출권 시장에는 세 종류의 상품이 상장돼 있다. 정부가 기업에 할당한 ‘할당배출권(KAU)’, 할당업체가 외부 배출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얻는 ‘상쇄배출권(KCU)’, 비할당업체가 외부 배출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얻는 ‘외부사업감축량(KOC)’이 그것이다.

환경부

탈성장

“탈(脫)이 뭐니? 벗어난다, 자유로워진다, 그러니 성장에서 벗어난다, 성장에서 자유로워진다, 이런 뜻이지.”

탈성장 쫓 아는 10대. 하승우. 풀빛. 2021

성장에 의존하는 경제체제가 지속되는 한 경기침체는 치명적일 것입니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탈성장’(Degrowth)입니다. 즉 계획적이지만 변화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경제의 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덜 가지고도 더 잘 살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위기는 많은 이들에게 잔혹하며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더욱 심한 타격을 입히고 있지만, 우리에게 성찰하고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수 있으며, 발판으로 삼아야 할 수많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동이자 개념으로서의 탈성장은 10년 이상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성찰해왔고, 지속가능성, 연대, 평등, 공생(conviviality), 직접민주주의, 삶의 즐거움과 같은 다른 가치들에 기반한 사회를 다시 생각하기 위한 일관된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탈성장: 경제의 새로운 근간' 탈성장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공개서한. 2020년 5월 13일

[최병두 칼럼] 성장의 한계와 탈성장사회

2020.06.21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50286.html>

태양광발전 Solar Power Generation

발전기의 도움 없이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양의 빛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환경친화적 발전방식이다. 태양광발전은 태양전지와 축전지, 전력변환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태양빛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태양전지에 쬐여지면 두 반도체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하여 전류가 흐르게 된다.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 규모는 협소하나, 글로벌 태양광발전 수요 확대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환경부

광주시, 방음벽·터널 일체형 태양광발전 첨단기술 개발 추진

2021.05.25 기계신문

<http://www.mtnews.net/news/view.php?idx=10892>

[환경칼럼] 태양광 발전 사업 이대로 두어도 좋을까

2021.05.13 천지일보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59653>

㉞

파리협정(신기후체제) Paris Agreement

제21차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신기후체제(post-2020) 합의문이다.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운 '교토 의정서'와는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감축 의무를 규정한 첫 세계적 기후합의로서, 2020년 완료되는 교토 의정서 체제를 대체한다.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C 상승 이내로 억제, 온실가스 감축이행 점검,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후대처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

팜유 palm oil

기름야자 열매의 과육(함유분 16~20%)을 찌서 압축 채유되는 식물성 유지이다. 전세계적으로 최고 생산을 보이는 유지자원이며, 연간 약 5,500만톤 정도가 생산 및 소비되고 있다
위키백과

블랙록, 인니 팜유 산업에 오락가락 ESG 투자 '뭇매'

2021.05.10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5105832i>

지구의 눈물, 팜유

2021.03.12 |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57>

패스트패션

패스트패션은 최신 유행을 따라 빠르게 제작하고, 빠르게 유통시키는 중저가 의류를 뜻한다.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비교적 값이 저렴할 뿐 아니라 디자인이 다양하며, 제품의 교체 주기가 짧은 게 특징이다. 패스트패션 업체들은 보통 1~2주 단위로 신상품을 선보인다.

패스트패션 브랜드는 SPA라고도 불린다. SPA란 전문점(Speciality retailer) · 자사상표(Private label) · 의류(Apparel)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 '제조 직매형 의류전문점'이라는 뜻이다. 세계적인 SPA 브랜드로는 스페인의 자라(Zara), 스웨덴의 H&M, 미국의 갭(GAP), 일본의 유니클로(UNIQLO) 등이 있다.

에듀윌 시사상식 2019년 04월호

환경오염 가속화하는 '패스트 패션'

2021.05.24 | KBS

<https://news.v.daum.net/v/20210524125402231?f=o>

핀란드서도 중고제품 열풍..."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소비"

19시간전 |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531010016060&form=MY01SV&OCID=MY01SV>

플라스틱 Plastic

열이나 압력을 가해 성형이 가능한 재료, 또는 이런 재료를 사용한 수지제품으로 일반적으로 천연수지 아닌 합성수지를 가리킨다. 석유를 증류·가열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분해가스를 만든 뒤 화학반응을 일으켜 만든다. 플라스틱은 두 그룹으로 크게 구별된다. 하나는 고분자로서 가열에 의해서 유동성을 가지게 되어 성형이 되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열가소성수지)이고, 또 하나는 저분자이지만 틀 속에서 가열·가압되는 동안에 유동성을 가지고 화학반응에 의해서 고분자화되어 그후 가열해도 변형되지 않는 열경화성 플라스틱(열경화성수지)이다. 플라스틱은 폐기처리될 때 유해 물질이 대량으로 발생되며 소각공장에서는 타지 않은 채 끈끈하게 벽에 달라붙어 소각로에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환경부

네이버 블로그: 이수캐스트

<https://blog.naver.com/isugroup/222025678309>

플뤼그스캄 Flygskam

스웨덴어식 신조어로, 항공기를 탈 때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환경공해로 환경오염에 일조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의미이다. 쉽게 말해 항공기 이용 반대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북유럽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으로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다. 영어로는 플라이트 세임(Flight shame)이라고 부른다.

탁쉬크리트 Tagskryt - 기차 여행의 자부심(Train Bragging)

나무위키

“미래세대 사용할 자원 도적질해 사용, 관리 소홀에 엄중한 죄책감 느껴야”

2021.02.22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9409&code=231111111&cp=du>

플랜테이션 Plantation

환금 작물(cash crop)을 전문으로 하는 대규모 상업적 농업농장이다. 주로 열대, 아열대 기후인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루어지며, 보통 서양인이 가진 기술력과 자본과, 원주민과 이주노동자의 값싼 노동력, 좋은 토지로 이루어지는 농업이다. 주로 단일-경작을 하며, 기업 위주 농업이다. 재배되는 것으로는 고무, 담배, 목화, 사탕수수, 삼, 차, 카카오, 커피 등이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기업위주의 단일경작 농업보다 소규모 개인 다각경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위키백과

물의 사유화로 인한 아마존강의 위기... '블루 골드'가 된 물

2019.03.22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211377738090>

㉔

해양산성화 Ocean Acidification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면 바다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 또한 증가하게 된다. 바다로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물과 만나 탄산을 발생시키고 이는 해양산성화를 촉진한다. 지구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약 4분의 1이 바다에서 녹아 탄산을 생성하는데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바다의 산성화가 심화되고 있다.

환경부

해양쓰레기 Ocean Waste

사람이 살면서 생긴 모든 부산물로서 바다로 들어가 못쓰게 된 것을 말한다. 해양쓰레기는 하

천과 강을 통해 유입되거나 해안이나 배를 통해 직접 들어온다. 해양쓰레기가 어디에 분포하고 있느냐에 따라 해변 또는 해안쓰레기, 부유쓰레기(해수표면 가까이 떠다니는 쓰레기), 해저 또는 침적쓰레기(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쓰레기) 등으로 분류한다. 정부는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해양쓰레기의 예방, 수거, 관리기반 구축, 교육홍보 등 종합적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해양의 탄산가스 흡수

Oceanic Absorption of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의 능력을 말한다. 지구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는 인간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25% 이상을 흡수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바다의 이산화탄소에 대한 저장 금고로서의 역할에 부하가 걸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다의 온도 상승과 이산화탄소 흡수량 증가로 인한 바다의 산성화가 지목되고 있다.

환경부

핵폐기물 Nuclear Waste

원자력 발전소 및 각종 연구소 등에서 나오는 원자력 부산물로서, 방사능오염 정도에 따라 고준위 폐기물과 저준위 폐기물로 나뉜다. 고준위 폐기물은 사용 후 핵연료를 말하는 것으로, 원전 연료를 핵분열시키고 난 후 재활용이 가능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제외한 나머지 찌꺼기를 말한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재활용을 위하여 주로 물 속에 넣어 보관한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원자로 내의 방사능을 흡착하는 이온 교환 수지, 방사능을 걸러 낸 필터, 액체 폐기물 처리 후 남은 찌꺼기, 방사능 처리 과정에 사용된 각종 도구 등을 태우고 남은 재 등을 말한다.

환경부

핵폐기물 버리는 '오랜 관행'과 싸우자

2021.04.18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0216.html>

일본, 28년 전엔 "핵폐기물 해양방류 반대".. 역사 잊었나?

2021.04.17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6222&CMP_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지금은 기후위기] 탄소중립위 출범..바라보는 시선 너무 달라, ...

2021.05.29 아이뉴스24

<http://www.inews24.com/view/1371315>

기후위기 대안으로 둔갑한 핵발전

21.04.30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06>

화력발전소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에너지에 의해 증기를 발생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곳을 화력발전소라고 한다. 석탄에너지를 태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기의 공급은 화력발전소가 약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 가며, 대기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풍력이나 조력, 지열과 같은 친환경발전시설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백과사전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해야"...인천 시민단체, 환경의 날 캠페인

2021.06.05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60518270175461>

탄소중립 가능할까?..G7, 청정에너지보다 화석연료에 더 투자

2021.06.03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997856.html

화석연료 Fossil Fuel

지각에 파묻힌 동식물의 유해가 오랜 세월이 걸쳐 화석화하여 만들어진 연료로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현재 인류가 이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제공한다. 19세기 이후 석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뒤 석유와 천연가스가 현대문명의 동력이 되었다. 화석연료는 지역별로 자원의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가격과 공급 면에서 항상 불안정한 요소를 지닌다. 또한 재생이 불가능하고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환경부

장혜영 "화석연료·CO2 톤 당...적정 탄소가격 부과"

2021.06.03 매일안전신문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834>

환경정의 Environmental Justice

환경오염의 영향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나 환경적 약자에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공평한 환경'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환경부

이익·책임 분배하는 '환경정의' 어떻게 실현할까

2021.05.22 | 쿠키뉴스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5210198>

"기후위기, 사회 불평등 심화..정의의 문제"

2021.06.02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563889>

영어

ESG

ESG란 환경보호(Environment) · 사회공헌(Social) · 윤리경영(Governance)의 줄임말로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미 기업을 평가할 때 ESG가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속성장을 위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데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에듀윌 시사상식 2021년 4월호

[ESG동향] ESG는 '그린 스완'과 맞닿아 있다

2021-06-10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10514942?OutUrl=daum>

말로만 ESG, 기후위기 외면하는 국민연금

2021.04.14 | 환경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7229>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에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정부 간 협의체이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세계 각국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 전문가, 경제학자 등 3천여 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IPCC의 주된 활동 중 하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교토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해 특별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1990년 이후 4차례에 걸쳐 발표된 특별보고서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공해 물질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과학적, 기술적, 사회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어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환경부

베를린·뉴욕 이어 서울 용산...기후위기사계 설치 선언 [H.eco forum 2021-‘기후위기사계’를 마주하다]

2021.06.10 |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10000642>

5R

미국의 환경운동가 베아 존슨(Bea johnson)의 5R

Refuse 거절하기

Reduce 줄이기

Reuse 다시 쓰기

Recycle 재활용하기

Rot 자연분해 제품 쓰기

사단법인이타서울 유튜브

우리동네스터디 - 두 번째 지구는 없다(5R실천기)

https://www.youtube.com/watch?v=AgvSFWKscok&list=PL0lCM3uby6QIIPgTTcbnXX6CWMYnczua_&index=3

[재활용 시리즈] 3R? 5R운동 시대!

2021.04.13 | 문화뉴스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323>

올바른 필요와 소비를 위한 5R 운동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위한 삶

2020.07.09 | 시티라이프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0/07/705350/>